

UN 세계 가족농의 해 : 가족농의 의미와 가치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서론

제66차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2014년을 “세계 가족농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amily Farming, IYFF-2014)”로 지정하는 결정문을 2011년 12월에 채택하였다(UN 2012). 이는 2009년 11월에 채택된 “세계 식량안보정상회의 선언문(Declaration of the World Summit on Food Security)”이 가족농과 소농은 세계의 개발목표인 식량안보와 빈곤퇴치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며, 그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IYFF-2014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UN은 UN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FAO)가 중심이 되어 UN 체제에 포함된 정부기구, 국제 개발 관련 기구, 농업단체들을 위시하여 관련 NGO들과 공동으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FAO는 세계농촌포럼(World Rural Forum, WRF),¹⁾ 국제농협연대(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²⁾ 세계농민단체(World Farmers Organization, WFO)³⁾ 등과 공동으로 ① 아

* (songsooc@gmail.com).

1) WRF. <http://www.ruralforum.net/Default.asp?id=en>

2) ICA. <http://ica.coop>

3) WRF. <http://www.wfo-oma.com>

시아 및 태평양(11월 21~22일, 태국 방콕), ② 아프리카(11월 6~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③ 남미와 카리브(10월 30~31일, 칠레 산티아고), ④ 유럽 및 중앙아시아(12월 11~12일, 벨기에 브뤼셀), ⑤ 근동(Near East, 11월 20~21일, 튀니지 튀니스)에서 가족농에 관한 지역대화(Regional Dialogue)를 조직하였다.⁴⁾

이밖에도 WRF(2014)가 제시한 IYFF-2014와 관련한 각종 행사와 활동 일정에 따르면, 스위스, 인도, 스페인, 프랑스 등이 국가수준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4년 2월에는 가족농에 관한 회의(Conference on Family Farming and the IYFF-2014)가 프랑스에서 개최되었고, 이어 3월에는 FAO와 헝가리가 공동으로 국제포럼(Global Forum and Expo on Family Farming)⁵⁾을 주관하였다. 앞으로도 각종 FAO 지역회의(Regional Conference)에서 가족농에 관한 문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국제 민간단체들(NGO)도 IYFF-2014와 관련된 의제들을 논의하고 관련 활동과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FAO는 IYFF-2014에 관한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련된 활동과 정보를 제공한다.⁶⁾ WRF와 협동으로 민간 사회단체의 공식 웹사이트도 개설되어 운용 중에 있다.⁷⁾

이러한 IYFF-2014 관련 활동은 농촌지역의 빈곤과 가난해소,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 생활 방식 개선, 자연자원과 환경 보존,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가족농이 큰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높임으로써 가족농과 소농의 증대를 이루기 위함이다. FAO가 밝힌 IYFF-2014의 목표는 더욱 평등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해소해야 할 격차와 기회를 찾고, 국가가 설정한 의제 중 농업, 환경, 사회 정책의 중심에 가족농을 재배치하는 데 있다. 또한 IYFF-2014는 소규모 자작농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가족농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국가, 지역 및 세계수준의 폭 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 글은 FAO를 비롯하여 개별국가(특히 유럽연합과 미국)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IYFF-2014 관련 논의와 활동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주요 내용은 가족농에 관한 개념과 사람들의 인식 및 EU 등 국가수준의 사례들에 초점을 맞춰 제시하고자 한다.

4) 지역대화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다.

<http://www.slideshare.net/FAOoftheUN/standard-presentation-on-international-year-of-family-farming-2014-for-regional-dialogues>. 지역대화 가운데 특히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ao.org/fileadmin/user_upload/Europe/documents/Events_2013/RD_FF/CN_en.pdf.

5) <http://www.fao.org/news/story/en/item/215573/icode/>

6) <http://www.fao.org/family-farming-2014/en/>

7) <http://www.familyfarmingcampaign.net/en/home>

2. 가족농 배경과 정의

가족농은 가족을 기초로 한 농업활동을 포함하고, 농촌발전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FAO(2013)의 정의에 따르면, “가족농은 가족에 의해 그리고 주로 가족의 자본과 노동력에 의존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 및 관리 수단”이다.⁸⁾ 곧 가족농은 가정(household)에 의해 관리되고 경영되는 농업경영체로 농업 노동력의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 공급되는 형태를 말한다. 김정호(2012) 또한 가족농을 주로 가족 노동력에 의해 운용되는 농업방식으로 정의한다.⁹⁾

이에 따라 가족농은 가족(family)과 농장(farm)이 연계되어 함께 진척되는 관계 아래 경제, 환경, 사회 및 문화 기능이 합쳐진 개념이다. 먼저, 사회학의 관점에서 가족농은 결속력, 연속성 그리고 헌신과 같은 가족의 가치와 관련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농은 특정 상업적인 기술, 사업의 소유권과 관리, 위험에 대한 대응과 선택, 개별적 성취 등으로 규정된다. 가족농은 보통 전문적인 직업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삶과 일의 전통과 믿음에 기반을 둔 생활방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농의 개념은 국가 간 또는 같은 국가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농가라 할지라도 농지 및 주요 천연자원의 공급 제한에 직면해 있는 가족농의 공통된 특징을 담고 있다.

Garner and de la O Campos(2012)가 요약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족농에 관한 정의는 모두 36개에 달한다. 이러한 정의들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존재한다.¹⁰⁾ 가족농 정의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개념은 노동력 주체로서의 가족, 관리 주체로서의 가정, 농지나 생산 규모 등이다.

국가 수준에서 가족농을 잘 발전시키려면 농업환경 조건, 지역의 특성, 정책 환경, 시장에 대한 접근, 농지와 자원에 대한 접근, 기술과 지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금융에 관한 접근, 인구와 경제 및 사회문화적 조건 등 다양한 성공 요인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가족농이 사회경제와 환경 및 문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가족농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족농과 소규모 농업은

8) 원문은 다음과 같다: “(Family farming is) “a means of organizing agricultural, forestry, fisheries, pastoral and aquaculture production which is managed and operated by a family and predominantly reliant on family capital and labor, including both women’s and men’s.”

9) 김정호(2012)는 가족농의 개념을 포함하여 이론과 경험, 동향과 전망, 외국사례 등 종합적인 사항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10) EU와 미국의 경우는 이 글을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세계의 식량안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둘째, 가족농은 전통적인 식량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섭취, 세계 농생물 다양성의 보존,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사용 등에 이바지한다. 셋째, 가족농은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는데, 특히 지역 사회의 보호와 복지를 목표로 하는 특정 정책과 연계되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3. 가족농의 특성과 가치¹¹⁾

3.1. 가족농의 특성

가족농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아래 존재한다. 전업농 또는 겸업농일 수 있으며, 상업적인 활동과 연계 또는 이와 상관이 없는 경영체일 수도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족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로 생산하는 농가를 “준생계농(semi-subsistence farm, SSF)”으로 부른다.

가족농의 영농형태에서 내포된 가족의 넓은 개념은 농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도시에 살면서 수확기 등 특정 기간에 영농을 도우며 농업 산출물의 일부를 얻는 친척까지 포함한다. 취미(hobby)나 목가적인 삶(lifestyle)을 위한 영농체도 가족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취미농의 경우 농산물의 생산보다는 삶의 질이나 경관 조성에 초점을 두고, 생산된 농산물은 주로 자급자족 목적으로 사용한다.

가족농의 특성은 그 정의가 다양한 만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족농은 자기고용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자유로움과, 세대 간 소유권 이전을 통한 지속성의 특징을 지닌다.

경영체의 소유권은 이른바 주체들(principals)의 관리 통제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체들은 농업인 자신, 농업인 부부나 자녀가 된다. 가족농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영체의 주체들이 혈통 또는 결혼에 의해 맺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거주 측면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농가 또는 인근 마을에 살기 때문에 가족 농업인들은 주로 농촌 또는 외진 곳에 산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가족농은 연대(solidarity)와 지속성(continuity) 및 헌신(commitment) 등 가족의 가치(family values)와 관련된다. 가족농은 직업 선택 이상의 가치이며, 삶과 일에 관한 믿음과 전통에 기초한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 이 밖에도 가족농의 특성은 경제 환경, 농외소득의 기회, 임차 농지의 사용 등에 관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형성되어 왔다.

11) 이 부분의 내용은 Davidova and Thomson(2013)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3.2. 가족농의 가치와 역할

첫째, 가족농은 중요한 복지기능(welfare function)을 수행하며, 농촌의 수많은 농업 경영체에 소득을 창출한다. 보통 소농과 준생계농(SSF)은 빈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족농은 농촌 빈곤문제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가족농의 기능은 개도국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외딴 산악지역에 위치한 농가들은 경사가 큰 메마른 농지를 가지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비록 관개시설, 통신 네트워크 등에 관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집약적인 영농이 곤란한 여건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 이외에 경제활동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분산되어 있어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농업은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며, 사회적 돌봄과 물질적 뒷받침에 있어 가구 스스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영농은 은퇴한 노동자들의 낮은 소득을 보충하는 역할도 한다.

둘째, 가족농은 근본적인 농업 생산자로서 식량안보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농이 식량안보를 증진하는 경로는 ① 농업생산과 농산물 무역, ②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다양한 음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작물과 축산물 및 원예작물의 생산, ③ 품질 높은 안전한 식량 생산, ④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으로 미래 식량안보의 초석 구축, ⑤ 취약 가구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 창출 등이다. 따라서 가족농은 식량안보와 관련된 문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주요 해결책이라 하겠다.

가족농의 식량안보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 측면의 기술변화(예: 가뭄내성 종자, 동물위생 증진, 천연자원의 관리방식 개선), ② 준생계농의 상업화로 농업성장에 기여, ③ 추적이력체제를 통한 식품안전 개선, ④ 제도 개선(예: 위험관리, 공급체인에 농업인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 농업 R&D와 같은 국제 공공재에 대한 투자는 식량안보에 미치는 가족농의 양(+)의 효과를 증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획득 가능한 더 나은 투입재와 영농방식의 채택을 더욱 확대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셋째, 가족농은 농업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 가족농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기여자이다. 이른바 공공재를 공급하여 사회 이득을 창출한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영농방식의 형태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복합농(mixed farming)의 경우 환경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가장 선호되는 영농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복합농은 부분적으로 “닫힌 체제(closed system)”이다. 작물생산의 폐기물이 환경

에 부담을 주지 않고 축산에 사용되고, 다시 축산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작물생산 부문으로 환원되어 천연자원의 기저에 부하를 더하지 않는다. 복합농은 재활용과 유기농업 및 더욱 다양하고 매력적인 자연경관에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뿐 아니라 환경론자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영농방식이다.

영농방식의 형태와 더불어 농가의 규모 또한 중요하다. 보통 투입재의 집약도와 생산의 다각화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존재한다.

기업농(corporate farms)처럼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채택한 대규모 농가, 곧 농가 특성과 생물다양성의 훼손, 곧 환경영향 간에는 연결된 고리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가족농과 준생계농의 경우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더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기업농에 비해 보다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제공한다. 소규모 복합농은 작은 경지들의 패치(patch)를 제공함으로써 긴 농지경계(예: 울타리, 돌담) 등 다양한 경관을 창출한다.

넷째, 가족농은 농촌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 전통문화의 보존에 기여한다. 농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가들은 그들 자신의 가계에 이득이 되는 활동과 더불어 비농업인의 복지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외딴 지역의 농촌인구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가족농은 또한 농촌지역의 문화자산(cultural asset)이다. 가족농은 경제활동 및 이와 연관한 문화 역사적인 사회구조를 포괄하는, 이른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을 공급한다. 가족농 특히 소규모 농가는 문화전통, 관습, 옷, 음악, 음식, 거주지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농촌관광에 관한 수요에 대응하여 가족농은 잠자리뿐만 아니라 음식제공, 특산물 판매 등 전형적인 지역전통을 제공한다.

4. 가족농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EU 사례¹²⁾

2013년 8월 5일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가족농에 대한 시민의 경험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출범시켰다. 이 설문은 가족농이 직면한 일부 위험과 우선순위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10월 11일까지 EU 및 기타지역의 많은 시민들과 단체 및 공공기관 등 가족농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협의(consultation)에 초청되었다. 이 협의의 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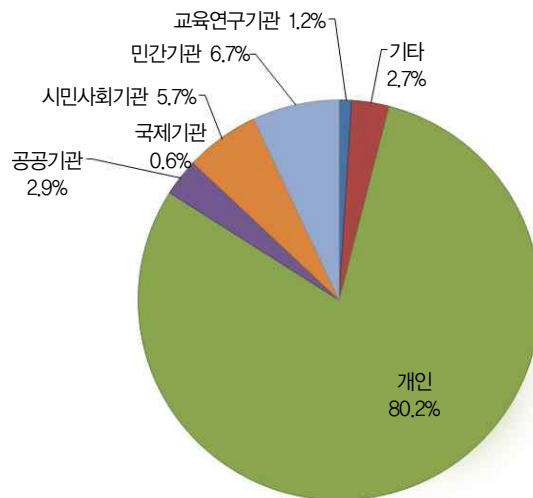
12) 이 내용은 EC(2013)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유럽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농의 의미나 가치, 정책조치에 대한 기대, 나아갈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013년 11월 29일에 개최된 유럽 국제회의에서 발표되었다(EC 2013). 이 요약은 5개 대륙으로부터 얻은 총 3,414명의 응답 결과를 기초로 중요한 결과만을 편향 없이 제시하고 있다.

4.1. 응답자의 특성

설문 응답자인 총 3,414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는 개인(시민)으로 80.2%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부문별 설문 응답자의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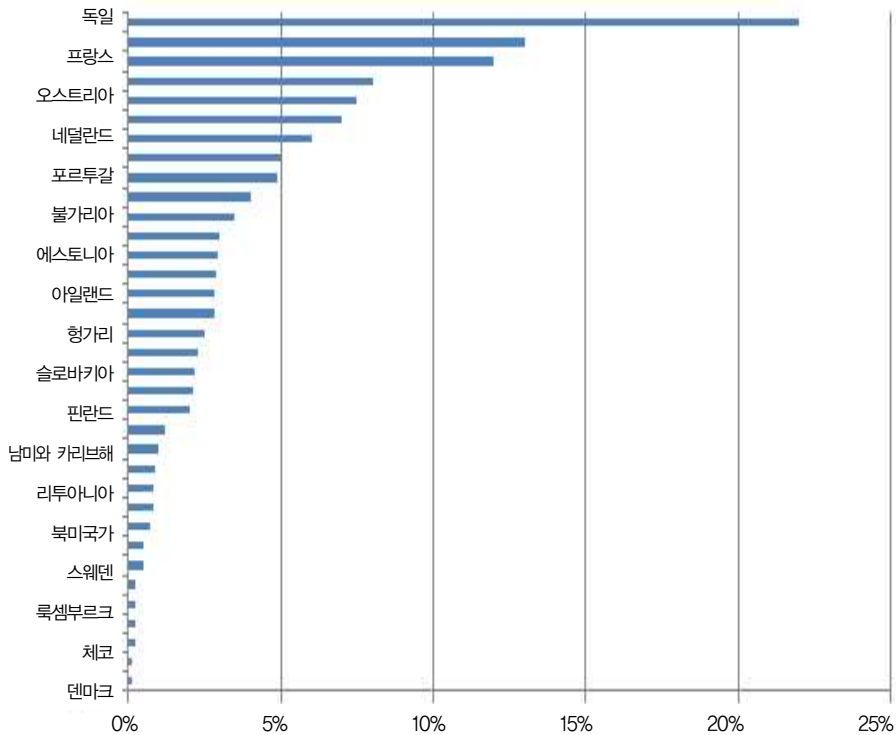
자료: EC(2013).

다음으로는 민간기관 6.7%, 시민사회기관 5.7%, 공공기관 2.9%, 교육 기관 1.2%, 국제기구 0.6% 그리고 기타 2.7%로 구성되어 있다. 약 97%의 응답이 유럽국가에 속한 개인 혹은 단체에 의한 것이고, 개도국에 속한 응답자는 2% 미만에 불과하다<그림 2 참조>. 기타 지역의 응답 비중은 1%이다.

전체 응답 중 2,659명이 본인의 성별을 밝혔는데 이 가운데 여성 응답자가 38%이며, 남성 응답자는 62%이다. 응답자 중 40%가 40세 미만이며, 3.3%만이 65세 이상이다. 이와 같은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65세 이상의 유럽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설문대상자들의 구성과 특성에는 한계가 따른다. 응답자들이 통계적으로

그림 2 설문 응답자의 소속 국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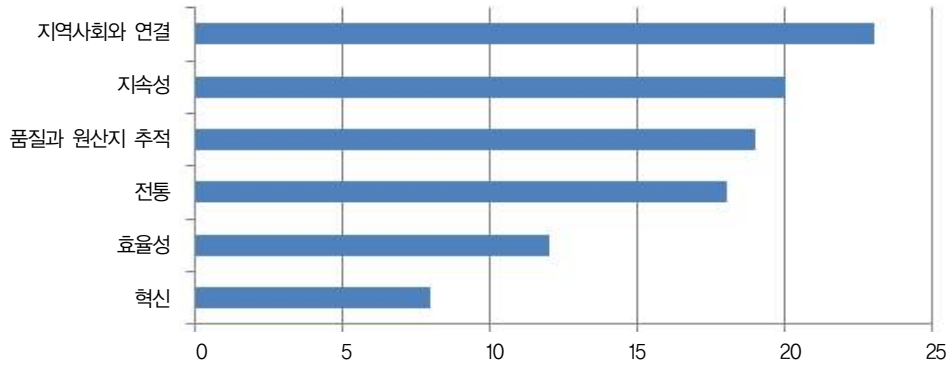
자료: EC(2013)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sample)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지역의 응답률이 97%로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균형 잡힌 대답이 아닐 수 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벨기에가 전체 응답의 44%를 차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4.2. 조사 결과

가족농은 사업(business) 이상의 것을 의미하나 여전이 일종의 사업으로 인식된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61%는 식량생산과 식량안보가 가족농의 주요 기여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족농과 연계된 질적인 가치요소(value element)에 대한 질문에서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 지속가능성, 고품질과 추적가능성, 전통 등을 꼽았다<그림 3 참조>. 반대로 혁신이나 효율성과 같은 요소들은 가장 낮은 가치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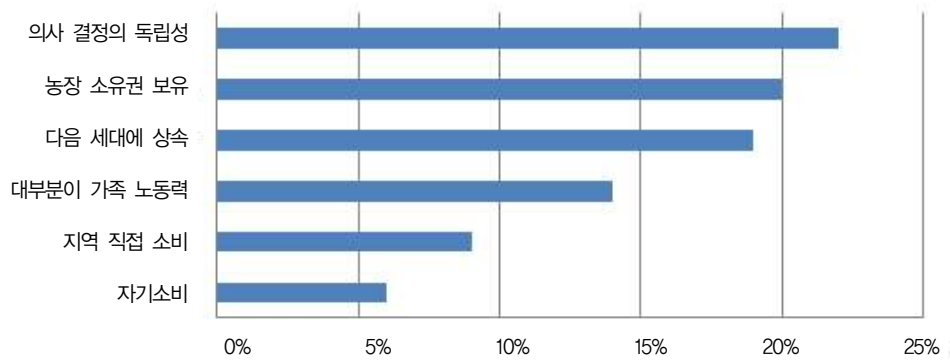
그림 3 가족농과 연계된 가치



자료: EC(2013).

가족농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의사결정의 독립성(22%), 농장의 직접소유(20%), 경영승계(19%) 등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그림 4 참조>. 반면에 직거래와 자가소비의 의미에 대해서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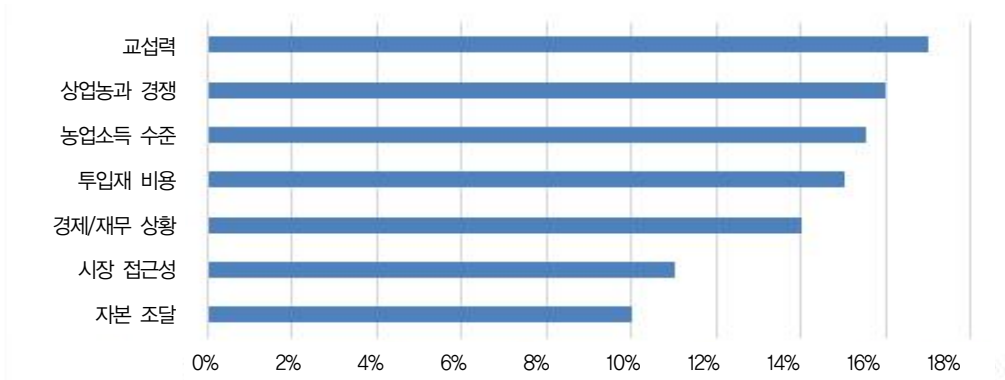
그림 4 가족농의 의미



자료: EC(2013).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농이 직면한 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7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교섭력, 상업농과 경쟁 등을 지적한 반면에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나 자본조달 측면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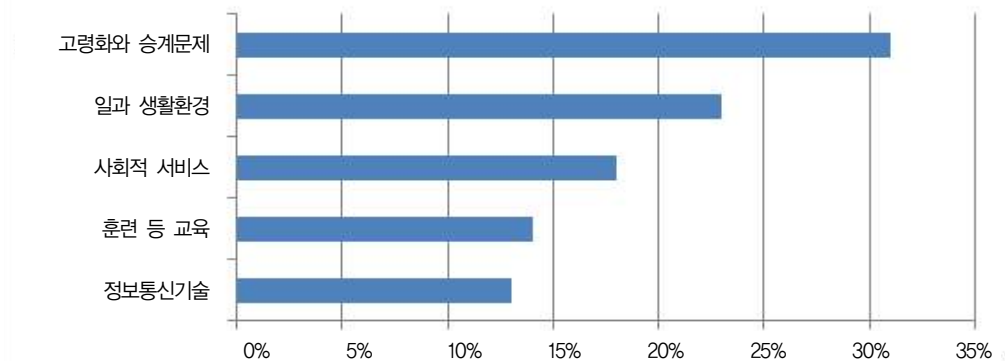
그림 5 가족농에 대한 경제 측면의 도전과제



자료: EC(2013).

가족농을 둘러싼 사회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전과제로는 고령화와 승계문제가 가장 높은 31%를 차지하였고, 작업과 삶의 여건도 23%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6 참조>. 정보와 통신 및 기술에 관한 접근성은 가장 낮게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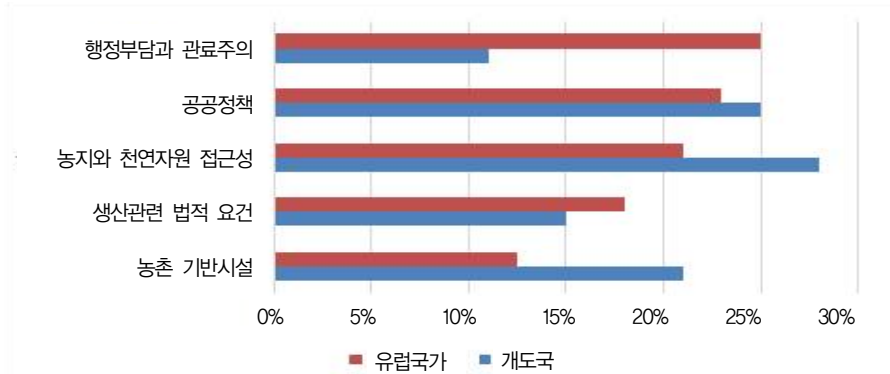
그림 6 가족농에 대한 사회 기술 측면의 도전과제



자료: EC(2013).

가족농 정책에 관한 질문은 유럽국가와 개도국 응답자 간에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그림 7 참조>. 유럽인들은 행정 부담을 가장 큰 장애(25%)로 지적한 반면에 개도국 응답자들은 이를 가장 낮은 비율(11%)로 응답하였다. 오히려 개도국에 있어 가장 큰 정책적인 도전과제는 농지와 천연자원에 관한 접근성(2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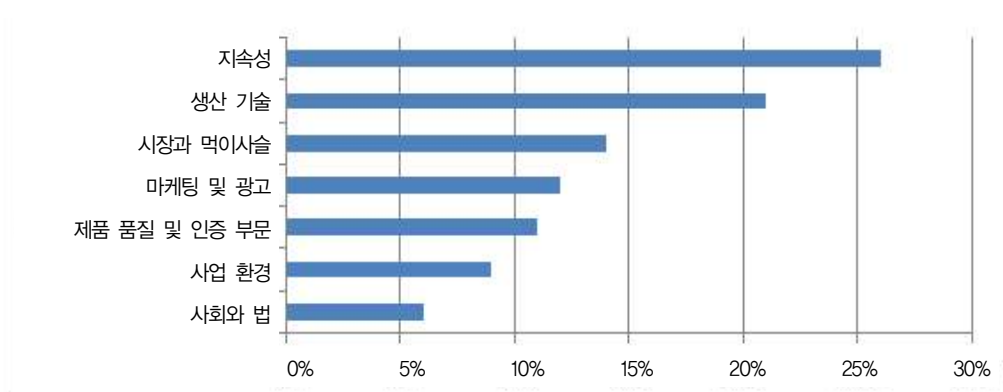
그림 7 가족농 정책에 대한 사회 기술 측면의 도전과제



자료: EC(2013).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기술과 혁신이 가족농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연구 분야로는 지속가능성(25%)과 생산기술(22%)이 지적되었다 <그림 8 참조>. 이러한 선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고, 사회인구 측면의 다른 그룹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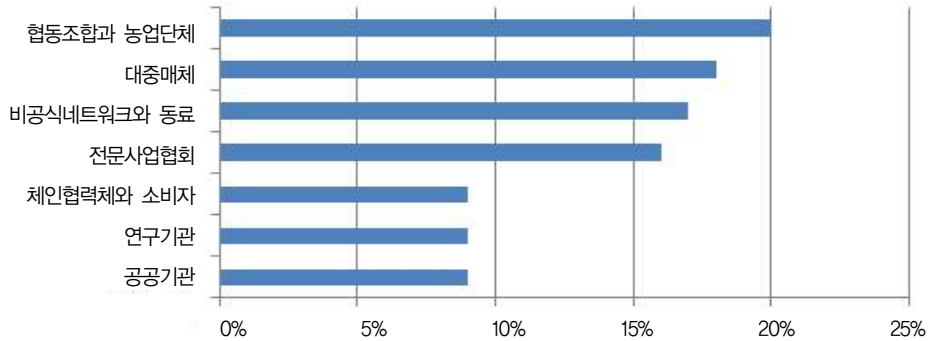
그림 8 연구 우선순위



자료: EC(2013).

새로운 기술 정보에 관한 가족농의 접근채널은 농협과 농민단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9 참조>. 언론매체와 비공식적인 채널 및 동료들로부터 정보획득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획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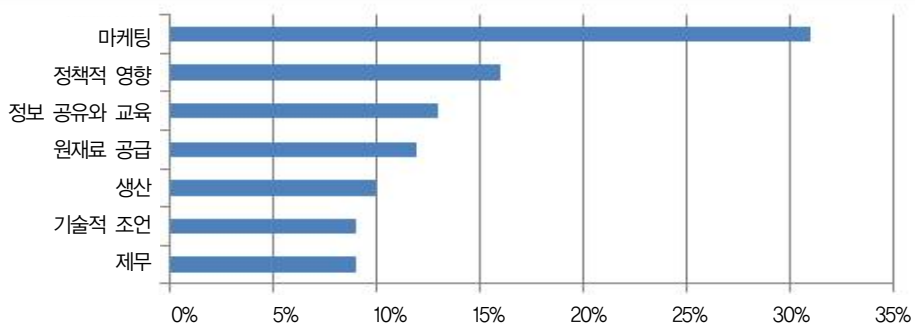
그림 9 가족농의 정보획득 경로



자료: EC(2013).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78%는 가족농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농협과 농업단체들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특히 농협의 역할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마케팅을 꼽았다<그림 10 참조>. 그 다음으로 정부에 대한 로비와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주된 역할이라고 지적하였다.¹³⁾

그림 10 농협의 역할



자료: EC(2013).

이 밖에도 응답자들이 지적한 가족농의 지속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기회요인을 대비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3) 이와 반대로 개도국 응답자들은 재무(finance)를 농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대답하였다.

표 1 가족농의 위협요인과 기회요인 비교

위협요인	기회요인
고령화와 승계문제 - 유럽의 6% 농업인만이 35세 미만인 반면에 1/3 이상이 65세 이상임.	농촌지역의 청년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활력 증대
행정 및 시장의 장애물	식량안보와 고품질 식품 공급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	가족농의 권한 부여(empowerment)
국가 수준에서 가족농의 대표성 부재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적응
무역에 관한 적절하지 못한 정책조치와 식량주권	문화가치의 보존
시장가격의 불안정	생물다양성의 관리
-	세계시장에서 경쟁

자료: EC(2013).

5. 주요국의 가족농 성공사례¹⁴⁾

5.1. 태국의 정책 지원

첫째, 태국은 다음과 같은 가족농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 농업 협력 단체나 소규모 모임을 형성한다.
- 정부가 해당 지역에 건물을 지으려 하거나 관개시설을 건축하려 할 때는 지역 지도자와 지역 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한다.
- 수력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다.
- 기술과 지식을 농업인들에게 최대한으로 전달함으로써 화학제품 사용을 줄여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인다.
- 각 지역의 농업인들에 알맞은 새로운 기술을 소개한다. 예를 들면, 목재 공예품, 누에산업, 면 제조업 등이다.
-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축산을 장려한다.
- 농업인들과 학생들에게 토양 없이 생산하는 법과 토양의 질 향상하는 법 등 농업 외의 기술을 가르친다.

14) 여기서는 2013년 11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가족농에 관한 회의에서 발표된 주요국의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사례들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c.europa.eu/agriculture/events/family-farming-conference-2013_en.htm

- 농업인들에게 위생과 식품 영양에 관해 교육한다. 작물 면역력과 질병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쌀 은행(rice bank)을 만든다. 태국은 국왕에 의해 이미 40년 전에 쌀 은행을 설립하였다. 이 은행의 이자는 적은 양의 쌀이다.
- 소 은행(cattle bank)을 만들어 이자로 송아지를 받아 다른 농업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둘째, “자족경제의 철학(philosophy of sufficient economy)”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합리성(reasonableness), 조정(moderation)의 3개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균형과 지속가능성, 지식과 윤리의 범주 안에서 제시되었다. 또한, 자족경제의 철학 아래 농업의 “새로운 이론(new theory)”은 벼 재배면적 30%, 작물과 원예면적 30%, 연못과 저수지 30%, 거주지 10%의 비율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주요 지역에 설립된 왕립개발연구센터(Royal Development Study Center)가 지역 농업인들에게 기술과 이론을 전파하여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지역농업문화센터(Community Agricultural Center)의 역할 확대이다. 그 성과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 농업 지식 교육 센터 (Local Wisdom Learning Center)의 활용

수판부리(Suphanburi) 지방에서는 유기농 쌀과 통합영농 방식을 지도하고 있다. 우수 종자의 선별, 모내기법, 농업 폐기물을 활용한 비료 만들기, 소금에 절인 달걀을 만들어 식품 보존하기 등이 지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② 통합 과수원(Integrated Orchard)의 운용

라영(Rayong) 지방에서는 특정 잔디종 (Vetiver grass)을 보급하여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토양에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썩은 과일과 과일 껍질은 유기농 비료로 가공하여 재사용하고 토종 돼지를 길러 지역 사회와 농장의 비료와 단백질 공급원을 찾게 했다. 숲을 활용해 요리하는데 필요한 불을 피게 하고 대나무를 활용했다.

③ 농업 숲(Agricultural Forest)의 설치

농업 숲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된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농업 숲은 또한 필요한 약재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④ 버섯 문화(Mushroom Culture)의 보급

부리룸(Buriram) 지역에서는 버섯을 생산하는 농가끼리 모여 생산 연습을 진행한다. 또한, 버섯을 대중 매체에 홍보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찾고, 더 품질 좋은 버섯을

생산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⑤ 통합 영농(Integrated Farming)의 확대

난(Nan) 지역의 경우 사람들에게 식물에 자라는 원리를 설명하고 시범과 연습을 통해 교육한다. 식품 보존법과 친환경적인 비료 생산법, 바이오 가스를 활용해 에너지를 만들어 활용하는 법 등을 전달하고, 양계장과 메기 연못을 연결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새로운 방안을 가르친다.

5.2. 라트비아의 농업 혁신

라트비아(Latvia) 바우스카(Bauska) 지역은 지역의회를 중심으로 농업과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농업기술 혁신을 달성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이러한 혁신에 장벽으로 지적되었던 요소들은 ① 옛 습관과 보수적인 사고방식, ② 정부 보조에 의존하려는 의태심, ③ 지식의 부재, ④ 미약한 협력체제 등이다. 이를 극복하고 달성한 몇 가지 성공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꿀 사탕(Honey Lollipop)의 개발 사례이다<그림 11 참조>. 젊은 농업인들은 지역의 주된 특산품인 꿀을 활용하여 꿀 사탕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 상품은 중소 사탕제조업체와 식품전문가 및 농업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양봉 농가들은 상점과 약국, 도매상과 거래를 통해 이전보다 더 큰 수입을 얻고 있다.

둘째, 왈로니아(Wallonia) 지방의 억새(Miscanthus straw) 생산을 통한 수익창출 사례이다. 척박한 땅을 활용하기 위해 제시된 아이디어로 억새로 만든 밀집은 정원이나 가축의 침구로 활용된다. 억새 생산과 마케팅을 위해 지역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레이저 사과(laser-apple)의 개발이다. 독일 콘스탄스(Constance) 강 유역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기술로 사과를 광고도구로 활용하여 개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사과판매 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축사의 바닥을 평평하게 정지하는 기계를 개발한 사례이다. 원래 이 기계는 2011년 독일의 바이에른 지역에서 가축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개발된 것인데, 이 기술을 사용하여 축사의 바닥을 정지하고 있다. 이 기계와 기술의 보급을 통해 가축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비용 측면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효율적인 퇴비 활용 기술의 개발 사례이다. 이 기술은 네덜란드가 퇴비를

그림 10 리트비아 가족농에 의한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 사례



〈꿀 사탕〉



〈레이저 사과〉



〈바닥 정지 기계〉



〈정밀분사기술〉

자료: http://ec.europa.eu/agriculture/events/family-farming-conference-2013_en.htm

가축의 침구로 사용하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농가는 비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관리체제를 시행하고, 고체와 액체입자를 분리시켜 미네랄 비료사용을 줄이고 품질이 높은 작물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로써 동물복지가 개선되었고, 새로운 축사 환경에서 품질 높은 우유가 생산되었다.

끝으로, 정밀분사기술의 개발 사례이다. 정밀기술은 농장 안에 작물을 보호하는데 유용하며, 농지에 기반을 둔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와 농업용품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한다. 정밀분사 기계는 농지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을 인식할 수 있어 사람에게 물을 뿌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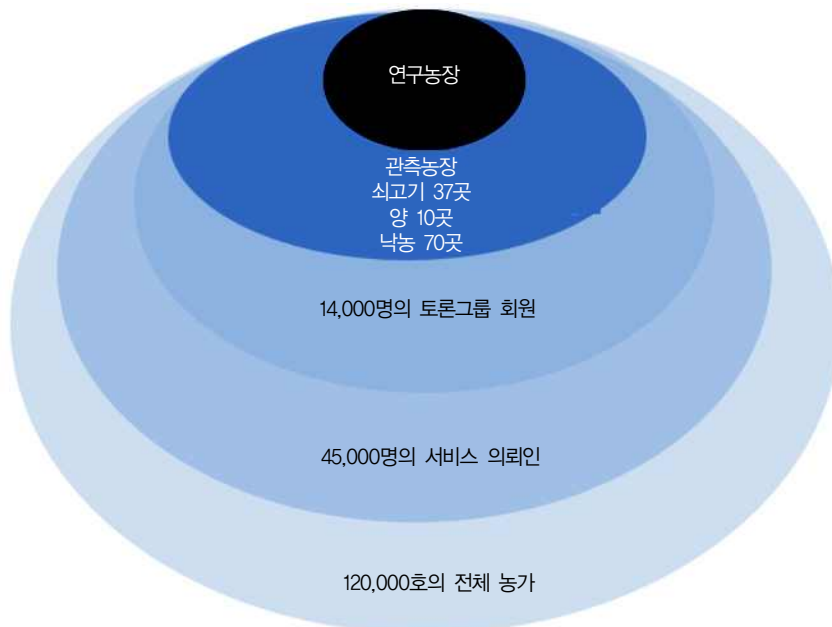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농업혁신 사례들은 가족농의 발전을 위해 제품과 기술 측면의 혁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농촌지역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의 농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한다.

5.3. 아일랜드의 기술지원 체계

아일랜드는 유럽 농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아일랜드의 가족농 수는 12만 호이고 농가당 경지규모는 평균 40ha이다. 주요 농산물은 유제품 36%, 쇠고기 34%로 축산업이 대부분이다. 이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쇠고기 675%, 버터 527%, 치즈 1,00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농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의 핵심은 TAEGASC(아일랜드어로 “가르침”이란 뜻)라 할 수 있다. TAEGASC은 정부 프로그램으로 각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consultation)과 검토(review)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① 연구자들(researchers)에 의한 신지식 창출, ② 창출된 지식을 전문가 그룹(specialists)이 가공하여 농업인들에게 정보 제공, ③ 자문가들(advisers)은 농업인과 함께 기존 또는 새로운 지식을 공동으로 활용, ④ 농장 적용의 경험과 활용 실적을 다시 연구자들에게 피드백 하는 연구와 지식전달의 통합된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러한 지식 창출과 전달체제는 <그림 11>과 같은 단계적인 확대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11 아일랜드의 TAEGASC 지원체계



자료: http://ec.europa.eu/agriculture/events/family-farming-conference-2013_en.htm

6. 정책 시사점과 결론

가족농 특히 소규모 가족농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존재하며 농업생산과 농업자원의 대부분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중요하다. 심지어 호당 농업경영 규모가 가장 큰 국가에 속하는 미국도 전체 농가의 97% 가량을 가족농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Hoppe and Banker 2010).

가족농의 공통된 특성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소규모 경영, 오직 가족 노동력에 의존한 농업생산, 자급자족 위주의 생산, 전통적 방식에 의한 농업경영 등을 들 수 있다. 농업부문에서 가족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농촌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및 환경 측면에서 가족농의 가치와 역할은 다른 어떤 경영체보다 중요하며 지대하다.

특히, UN에 의한 IYFF-2014 지정은 가족농의 육성과 발전이야말로 세계의 식량안보를 확충하고 더 나아가 기아와 빈곤을 해결하는 유용하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농 육성에서 국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역 수준의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수성에 알맞은 정책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 농업인,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합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제시된 몇 가지 정책제안을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EC 2013). 첫째, 농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신뢰할 수 있는 소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농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정보가 보급되어야 한다. 셋째, 대규모 투입재 공급자와 식품 가공업체 및 소매업체로부터 불공평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농을 보호해야 한다. 넷째, 가족농의 적응 및 혁신능력 제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투자와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가족농의 시장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농업과 비농업 부문 간의 노동력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 여섯째, 가족농에 의한 환경보호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지원해야 한다. 일곱째, 농협 등 농업인 관련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투입재 구입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여덟째, 가족 중 여성 농업인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아홉째, 가족농이 활용할 수 있는 농업 R&D에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경영의 세대 간 계승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국제기구인 FAO 차원에서는 가족농의 구조와 소득에 관한 통계를 개선하

는 노력이 필요하고, 가족농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정책과 농촌개발을 해마다 모니터링 하는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정호. 2012. 가족농연구: 농가와 농업경영의 과거·현재·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26. (www.library.krei.re.kr)
- Davidova, S. and K. Thomson. 2013. Family Farming: A Europe and Central Asia Perspective. http://www.fao.org/fileadmin/user_upload/Europe/documents/Events_2013/FF_EUCAP_en.pdf
- European Commission[EC]. 2013. Family Farming: A Dialogue Towards More Sustainable and Resilient Farming in Europe and the World. http://ec.europa.eu/agriculture/consultations/family-farming/summary-report_en.pdf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2013. 2014 IYFF FAO Concept Note (Modified May 9, 2013). http://www.fao.org/fileadmin/templates/nr/sustainability_pathways/docs/2014_IYFF_FAO_Concept_Note.pdf
- Garner, E. and A. de la O Campos. 2012. Identifying the Family Farm: An Informal Discussion on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http://www.fao.org/fileadmin/templates/agphome/Family_farming/Family_Farming_Definition_ESWSeminar.pdf
- Hoppe, R. and D. Banker. 2010. Structure and Finances of U.S. Farms. USDA/ERS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o.66. http://www.ers.usda.gov/media/184479/eib66_1_.pdf
- United Nations[UN]. 2012.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2 December 2011. A/RES/66/222.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6/222&Lang=E
- World Rural Forum[WRR]. 2014. Civil Society Calendar of Activities for the IYFF-2014: Preparation and Development. http://www.familyfarmingcampaign.net/pdf/calendario/8_civil_society_calendar_of_activities_iyff-2014_february_2014.pdf